강진군 내년 관광객 700만 시대 연다

강진원 군수 군정 5대 방향 제시 십자형 관광 발전 전략 등 제시 노인복지 강화·기본소득 기틀 마련

강진군이 차별화된 강진군만의 전략과 정책으로 '동순천, 서강진의 시대' 재도약을 위한 준비에

강진원 군수는 최근 제31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을 5355억원으로 편성해 사상 첫 본예산 5천억원 시대를 열게 됐 다"며 2026년 군정 5대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군수는 특히 동서로 이어지는 남해선 철도, 남북으로 연결되는 강진-광주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한 '십자형 관광 발전전략'을 내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강진 방문인구는 이미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교통망 완성에 맞춰 2026년에는 '방문인구 700만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농업분야에서는 강진군 전체 예산 중 1차 산업 예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 작년보다 136억원을 증액해 농업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견고히 한다.

나주시, 골목형 상점가 확대

한다고 밝혔다.

려움이 있었다.

하고 있다.

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로 참여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공실 상가 해소·소비 촉진 총력

나주시가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나주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지정'을 본격 추진

골목형 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상인들이 공동체

를 구성하면 상권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 온누리상

품권 가맹점 가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빛가람동과 원도심 주요 상권을 중심

상인 참여 문턱을 낮추는 행정 지원 체계와 '골

목형 상점가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공실 상가 해

소,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 지역 소비 촉진 등

기존 상점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

아 동의서 징수 등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상인 의

지가 있더라도 실제 지정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어

시는 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동의서 작성 지

원, 상점가 홍보 등 지정 절차 전반에 대한 행정 지

나주시는 일정 구역에서 임시 집행부가 구성되

면 '골목형상점가 서포터즈'를 투입해 동의서 작

성부터 행정 절차까지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식으

시는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통해 가맹점 확충,

결제 편의성 향상, 지역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상권 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으로 지정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쇼핑몰 확대, 로컬푸드 유통 강화, 마량 항 저온 위판장 착공으로 판로를 넓히고, 청년농 육성과 계절근로자 확대, ICT 스마트팜 등 '강진 형 10차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잇는 교통 망을 기회 삼아, 내년을 '철도관광객 강진방문 원 년의 해'로 추진해 목포, 순천, 부산의 대규모 관 광객을 유치하고, 광주와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빨대효과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축제와 반값여행, 지역상품권을 연계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갈대밭 아간경관 등 관광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마케팅으로 대회 유치, 친절·위생 교육 강화 등 '휴먼파워기반의 관광 경쟁력'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50호 공급, 뉴빌리지 사업 140 가구 조성, 임천지구 신규마을 착공 등 주거를 확충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양성센터 운영, 전남생명과학고와 전남미래국제고를 통한 유학생 유치, 강진 제2일반산단 조성 등 일자리 기반도 강화하다.

내년 노인복지 예산은 566억원을 편성해 '우리 동네 고기밥상데이', 목욕·빨래서비스, 경로식당 확대, 경로당·복지회관 시설 정비 등 사업과 예산,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또 복지종사자 수당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해 함께 돌보고 성장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홀몸 어르신·장애인·결손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통합돌봄, 동행서비스, 은둔형 외톨이 지원 등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고등학교 졸업생 진로·진학 준비금 50만원 신설, 가정용 태양광 지원, 도시가스·LPG 보급 확대, 안전보험 사각지대해소도 추진한다.

남해선 철도 고속화, 강진-마량 국도 23호선, 국지도 55호선 확·포장, 까치내재 터널 준공 등 대 형 SOC 사업을 가속화하고 강진만 횡단교는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 해 국·도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최대 전력공급 거점인 신강진변전소를 기 반으로 AI 데이터센터 유치해 강진을 AI 산업도 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동순천, 서강진 시대를 다시 열어 강진을 전남의 중심이자 남해안의 거점도 시로 만들어 가겠다"라며 "의회와 행정, 군민 모두 가 마음을 모을 때 강진의 새 미래가 열린다"라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김한종 장성군수 등 관계자들이 2025 올해의 SNS 시상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자축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페이스북, '올해의 SNS' 최우수상

유튜버 감스트와 23만 조회수

장성군이 '제11회 2025 올해의 SNS' 시상식 에서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의 SNS 시상식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 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공동 주관 한 행사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성과를 평 가하다

장성군은 '2025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장성 출신 유튜버 '감스트(본명 김인직)'를 홍보대사 로 위촉하고 영상을 제작, 23만 조회수를 기록 했다.

또장성군의 '도시 브랜드캐릭터' 인 성장이와 장성이를 등장시킨 카드뉴스로 군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쇼츠' 영상으로 다양한 군정 소식도다아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수상으로 이어져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장성의 매력을 알리겠 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함평읍 엑스포공원 내 겨울빛축제장 모습.

함평 겨울빛축제 '순금 한 돈 황박이' 이벤트

SNS 축제장 인증사진 응모

함평축제관광재단은 겨울빛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형이벤트 '골든 황박이를 잡아라'를 내년 1월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장을 방문한 국민 누구나참여할 수 있으며, 재단은 내년 1월11일 겨울빛축제 폐막식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1등 순금 한돈 '골든 황박이 뱃지' (1명), 2등 함평 한우 선물세트(2명), 3등 황박이 굿즈 꾸러미(5명)를 제공하다

1등 경품인 골든 황박이 뱃지는 함평의 상징인 황금박쥐상을 본따 제작한 경품으로, 함평을 대표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첨은 공정성을 위해 함평축제관광재단 유튜 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하며, 결과는 유튜브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참여 방법은 축제장 내·외부 9개 지정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함평축제관광재단 계정을 팔로 우하고,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 에 사진을 게시한 뒤 재단에서 제공하는 응모 사이 트에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QR코드는 빛의 회전목마, 빛의 미로와 트리, 불 멍존, 체험 프로그램존, 이이남 미디어아트 등 축 제장 내 5곳과 함평공영주차장, 함평나비어울림 센터, 함평읍사무소, 함평천지종합복지관 등 읍 시가지 4곳에 마련했다. 사진에는 읍 시가지 장소 1곳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 '건강축제' 자리매김

성과 보고회…관람객 24만명

장흥군이 최근 '2025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성과보고회를 갖고 통합의학박람회가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건강축제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박람회 예산 확대와 차별화 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26 년 박람회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장흥군 안 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 올해 박람회는 '치유, 통합의학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는 전국 병원·대학·협회 등 70개 기관이 참여해 박람회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24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의학 상담과 진료, 심신 회복을 돕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숲테라피 공원·치유정원 등 힐링 공간과 함께 올해 처음 선보인 '힐링매직터널', '스탬프 랠리 이벤트'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경찰·소방 등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화순군이 연말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 화를 위해 12월 한 달간 지역상품권의 구매 한도 와 보유 한도를 월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화순군은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모바일 화순 사랑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12월 한 달 동안 화순사랑상품권의 구매 한 도와 보유 한도를 각각 2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CHAK (착)'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관내 모바일 화순사 랑상품권 가맹점 2800여 개소에서 QR코드 결제 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